

#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해 왔습니다



동북고등학교 국어교사  
MBC PD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OBS 경인TV 대표이사 사장  
JTBC 대PD  
(현)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올해 나이 62살,  
스티브 잡스와 같은 해에  
태어났고 빌 게이츠와도  
동갑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 좋고, 미래의 꿈을  
가진 20대와 함께하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는  
“영원한 PD” 주철환  
교수를 만났다.



**Q. PD, CEO, 작가, 교수, 싱어송라이터 등 국민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A.**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호기심이 많아 끊임없이 다양한 길을 걸어온 덕분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다양한 경력이 종합된 지금이 좋습니다. 직업적으로는 PD로서 가장 오래 일했는데 MBC PD 17년, OBS 경인TV 사장을 2년, JTBC 대PD 4년을 합하면 총 20년 넘게 PD로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 미래의 꿈을 가진 젊은이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Q. 플랫폼의 진화와 함께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문화콘텐츠 학과에서 가장 핵심을 두고 가르치는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A.**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도 <태양의 후예>에 출연한 배우 송중기를 만난 자리에서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도 방송 현장 경험과 방송 경영 실무를 살려 한류와 콘텐츠를 이끌어 가는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핵심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유익함을 주는지와 이를 기획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진들은 저와 같은 PD 출신도 있고 TV, 인터넷, 게임, 광고, 출판,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주철환> 하면, ‘젊음’이 떠오릅니다.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상세한 비결이 궁금합니다.**

**A.** 제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동안의 뿌리는 동심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제겐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매일 만나는 사람이 젊은이들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서른 살 된 제 아들, 그리고 아들의 친구들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제겐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아들이 스무 살 때부터 서른 살까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있어서 뿌듯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과 많이 대화하고 어울리며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셨고, 현재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A.** 현재 우리의 교육 방향은 괜찮지만, 실천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가정의 부모님들이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 영, 수만 잘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재다능한 아이보다는 다정다감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 즉 인성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 아이가 무엇을 즐겁게 잘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적성을 알기 위해서는 ‘관찰’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7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아야 35명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보다 학생 수가 절반은 줄었으니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잡무를 과감하게 줄여줘야 합니다. 모두가 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 수도 없고 만듦 필요도 없으며 자신의 적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적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부모의 관찰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 시스템과 제도도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흑자는 ‘결핍이 성공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의 <주철환> 교수님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A.** 비유를 하자면 저는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가 부재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어 역설적으로 내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엄마와 아빠의 꿈이 투시되어) 내가 없다고들 합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도 주인공 닐은 연기가 꿈이지만 부모는 의사가 되길 강요하고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었지요.

제게 엄마, 아빠를 대신한 분, 그분이 바로 고모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뚜렷한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용어로 말하자면, ‘자기 주도 학습’을 강조하셨는데, 제게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서 한다’는 것이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챙겨주니’가 아니라, ‘난 널 믿는다, 넌 천재야’라고 늘 저를 과대평가하며 기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모님께서 소망과 희망을 깔아주신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그동안 서적도 열여섯 권 출간하고 신문 칼럼도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계시는데, <주철환> 교수님의 글은 음운을 맞추어 주제를 정리하는 등 창의성이 돋보입니다. 글쓰기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었나요?**

**A.** 라임 맞추기, 삼행시는 제 주특기죠. 제가 ‘성공의 조건’으로 언급한 쌍기역 돌림의 ‘꿈·끼·깡·꽤·꼴·끈’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데, 제가 처음 쓴 말들입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항상 자신감을 가져라.’ 하고 길게 말하는 것보다는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주전자’라고 하는 것이 기억하기 좋고 효율적이죠.

어린 시절 집에 책은 없었지만 라디오와 신문이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고모님이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물건을 ‘신문지’로 포장하셨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신문지’를 읽고 꾸준히 일기를 쓰며 문장을 배웠습니다. 초

등학교 4학년 때는 교내신문에 글을 투고했습니다. 이후 담임선생님께서 저에게 전교 백일장에 나가보라고 하셔서 교내 백일장에서 상도 받게 되고 문예반장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자 국문과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국어교사를 하다가 PD를 했냐고 물어봅니다. 국어는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로 이루어지고 언어는 정서와 사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언어를 영상언어로 바꾼 겁니다. 제가 국어교사 마인드로 PD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해 왔습니다

**Q.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직업이나 지위에 계신 적이 많습니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PD 자체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호감과 신뢰를 줘야 합니다. 리더는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준비하도록 힘을 합치는 일의 중심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믿음만한 사람이면서 함께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가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향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한마디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거나 특정인의 편에서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할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이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만일 피해 당사자가 된다면 언론중재위원회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제가 언론중재위원회까지 갈 일은 없었는데, 온라인 기사에 달린 댓글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해당 고교생으로부터 반성문을 받는 것으로 잘 마무리 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문턱이 높을 것 같다. 번거로울 것 같다. 이런 사안으로도 신청해도 될까?”라고 망설이는 국민에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오시면 당신의 역할을 풀어줄 수 있다고 사례를 중심으로 잘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 | 이진숙(홍보팀장) · 정리 및 사진 | 최은진(홍보팀 차장보)

